

## 무안공항 육성 등 속도 못내... 임기 내 실현 '불투명'

尹 대통령 임기 반환점, 대선 공약 점검 - 전남

소멸 막기·균형 발전 등 핵심 정책  
13개 사업 아직 사전 절차 진행 중  
각계각층 체계적 전략 마련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은 지난 2년 반 동안 구호만 앞세웠지 제대로 문제를 풀어난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이행 여부도 후한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추진 의지에다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 등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일부는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현 정부 임기 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 대선 공약 대부분이 지역소멸을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광주와 전남지역 공약 이행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 중 17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7개 분야 15개 정책 과제, 30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2023억원의 국비 반영으로 이어졌고 9개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4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단계에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대선 공약에 반영된 전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는 21조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

로 조성'한다는 대선 공약은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국비 3685억원)이라는 사업으로 추진돼 올해 816억원을 포함, 지난 3년 간 1552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전남 대선 공약 중 가장 많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꼽힌다.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공약은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자연·문화자원 융합 관광거점 육성 ▲다도해 선사인쇄이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는 정책 과제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해양생태관광벨트 사업에 포함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비 6510억원) 사업은 올해 111억원이 투입됐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및 순천정원도시 조성사업 (국비 400억원)은 올해까지 29억 6000만원이 투입된 상태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1조 3678억원) 사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지 조성' (429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각각 올해 35억,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1475억원) 사업도 올해까지 37억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다.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공약도 광주-완도 2단계(완도-강진) 사업(1조 3243억)과 광주 3순환(화순-담양 대덕)도로, 광주-고흥(우주센터) 간도로, 광주-영암-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3개 사업(5조 2024억)으로 구분해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공약들도 많다. 당장, '무안국제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얽히면서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025년 무안공항 경우 호남선고속철 완공에 맞춰 무안공항 육성을 위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무안 항공국가산단 지정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공약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2260억원)을 위한 정부 예산(4억) 반영 현황이나 기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국립 의대 설립 문제에 전국 사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현실과 취약한 의료현실을 고려해 동·서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색단풍' 백양사의 가을 휴일인 10일 장성 백양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단풍나무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尹, 임기 반환점에 지지율 17%

갤럽 여론조사, 부정평가 74%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17%를 기록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9~31일)에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2%포인트(p)가 하락, 갤럽 여론조사 기준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5%p 오른 23%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6%p 올라 28%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22%→17%), 인천·경기(16%→14%), 대전·세종·충청(29%→18%), 광주·전라(6%→3%)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 (23%), '경제/민생' (9%), '주관/소신' (7%), '결단력/추진력/독심' (6%), '국방/안보', '안정적',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 (19%), '경제/민생/물가' (11%),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6%), '독단적/일방적' (5%), '외교', '의대 정원 확대' (이상 4%), '부정부패/비리' (3%)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번 담화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동된 기본적 인식을 갖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인식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수능 한파 없다

광주·전남 맑고 온화한 날씨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11월 14일) 당일 광주-전남은 흐리겠지만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지난주 반짝 추위를 불렀던 중국 북쪽의 고기압 세력이 약화돼 수능당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전남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 4-10도, 최고 16-18도)보다 3-5도 가량 높겠다"고 10일 예보했다. 11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낮 최고기온은 20-23도에 분포하겠으며, 12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낮 최고기온은 18-21도를 보여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이다. 일교차는 10-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수능 당일인 14일 역시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0도로 관측돼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수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전라남도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